



## 판결문 속 어려운 말, 쉽게 풀어 읽기

대한민국 법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어려운 판결문을 쉬운 단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이번 시간에는 판결문에 쓰이는 ‘계리(計理)하다’, ‘공(供)하다’, ‘일부인(日附印)’의 쉬운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
### 1. 계리(計理)하다

회계 처리하다, 처리하다, 계산하여 정리하다

#### | 판결문 예시 |

...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甲의 소유로서, 乙은 이를 자신의 다른 현금물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#### | 쉽게 읽기 |

...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甲의 소유로서, 乙은 이를 자신의 다른 현금물품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## 2. 공(供)하다

제공하다, 쓰이다, 사용되다

### | 판결문 예시 |

...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 '주택'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### | 쉽게 읽기 |

...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'주택'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## 3. 일부인(日附印)

날짜 도장

### | 판결문 예시 |

...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, 문구점에서 구입한 일부인을 사용하여 ...

### | 쉽게 읽기 |

...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, 문구점에서 구입한 날짜 도장을 사용하여...

(출처/법원사람들)